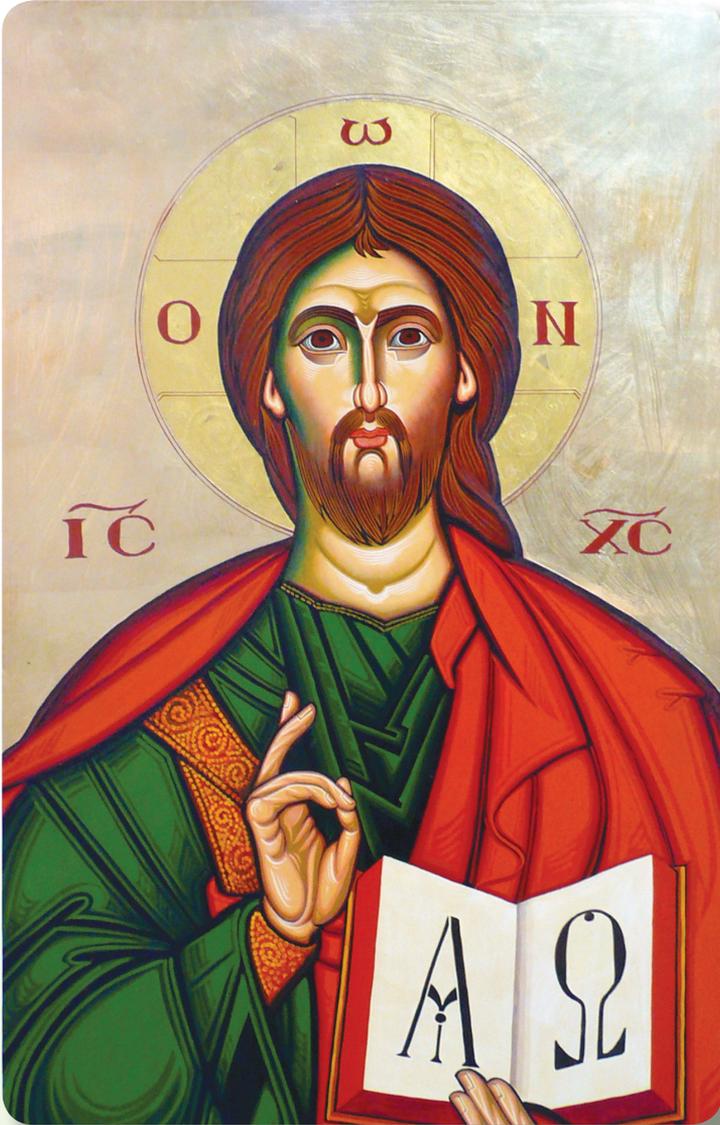


# 대구주보

연중 제3주일

2012.1.22.(나해) 제1765호



## †금주의 성화

### 구세주 예수님

이콘에 씌어 있는 글자들은 그리스 문자이며, 각각 Ω(하느님), Ο(예수님), Ν(나자렛 사람), ΙC(예수), ΧC(그리스도)를 뜻한다. 구세주께서는 당신 오른손으로 강복하고 계시는데, 그 오른손의 손가락 모양 안에는 그리스어의 IC XC,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이름이 들어 있다. 주님께서 왼쪽 손에 들고 계시는 책은 성경이며, 이는 말씀(왼손)을 통해 당신의 이름(오른손)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뿐이다(사도 1,12 참조).

이홍구(스테파노) 작  
한국 가톨릭 이콘 연구소장

## †오늘의 전례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4-20 참조)

네네베 사람들은 낯선 고장에서 온 예언자 요나의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합니다. 첫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과 야고보 네 사람도 예수님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마르 1,18:20) 주님을 따라나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직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서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고,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 회개 - 내 안에 있는 ‘그물’을 발견하는 것



이태우 프란치스코 신부 / 매천성당 주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지난해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희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하고 선포하시며, 새롭고 희망찬 삶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란 단어를 많이 접합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란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하지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장면 속으로 꼼꼼하게 들어가 봅시다. 먼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부르십니다. 또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저는 ‘그물’이라는 단어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그들의 생계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형성된 감정의 신념체계로서, 대인관계 안에서 자신을 움아매는 부정적인 낄줄과 씨줄의 덩어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물’(살아오면서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이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듣게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별 것이 아닌데도 내게는 날카롭고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지닌 이런 내면의 ‘그물’을 꿰뚫어보십니다. 또 우리가 ‘그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써 마침내 ‘그물’을 던져버리고 참된 자유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비록 매우 짧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제자들 안에 있던 ‘그물’을 바라 볼 수 있도록 하신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그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즉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회개란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물’을 발견하고 그 그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삶을 움아매는 욕심의 그물, 자존심의 그물, 체면의 그물, 교만의 그물, 허영의 그물, 두려움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각자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초대에 홀가분하게 응함으로써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새해 되길 바랍니다. 

# 죄와 회개 - 올바른 선택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 주일 말씀

제1독서에서 니네베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요나는 악한 길을 걷고 있는 니네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느님의 이 부르심을 피해 달아났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여 니네베로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 니네베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니네베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믿음과 회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하면서 더 나아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 하십니다. 시몬,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어부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 말씀과 교리

### · 죄와 회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원죄라고 일컫는 첫 번째 불순종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습니다. 죄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선하신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죄인들은 회개할 수 있고, 죄로부터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치유와 빛을 가져다주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 말씀과 성사

고해성사(화해의 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끊어진 하느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를 거행하는 성사입니다.

## 묵상해 봅시다

- 죄란 무엇입니까?
-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 죄를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국진



## Q 알렐루야는 무슨 뜻인가요?

**A** 미사 때 복음을 봉독하기 전에 노래하는 ‘알렐루야(Allelujah)’는 ‘찬미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말 ‘힐렐’에서 나왔는데요, ‘찬미하라’하고 명령하는 형태가 ‘할렐루(Hallelu)’입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이름 야훼의 약자 ‘야(Jah)’가 붙어 ‘할렐루야’가 되면 ‘하느님을 찬미하라’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라틴말로 옮겨 적을 때 라틴 사람들이 잘 발음하지 못하는 히음이 떨어져 나가 ‘알렐루야’가 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국진

# 사랑을 위하여

이태수 아길로 / 시인

에리히 프롬은 '소유'와 '존재'라는 삶의 두 가지 양식을 테니슨과 바쇼의 시에서 추출, 소유양식을 비판한 바 있다. “갈라진 벼랑에 핀 한 송이 꽃 / 나는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따낸다. / 나는 너를 이처럼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다.”는 테니슨 시의 화자는 꽃을 소유하려 한다. 바쇼의 경우는 대조적이다. 그는 “가만히 살펴보니 / 냉이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울타리 옆에!”라는 하이쿠를 통해 존재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꽃을 꺾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손을 대지도 않는다. 바라보면서 그 꽃과 하나가 되려고만 한다.

'소유'와 '존재'의 차이는 '인간'과 '사물'에 각기 중심을 둔 사회로 변별된다. 소유를 지향하면 돈, 명예, 권력에의 탐욕이 삶을 지배하게 된다. 반대로 존재를 지향하면 소유하지 않고, 그러려고 갈망하지도 않는다.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자기 재능을 생산적으로 쓰면서 그 세계와 하나가 되기에 이른다. 존재양식은 자기발전과 창조로 나아가지만, 소유양식은 변화와 모험, 실험 등을 이반하게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의 고뇌는 어디에 그 뿌리가 있는 것일까? 아마도 소유양식에로의 기울어짐 때문일 것이다. 프롬의 주장대로, 그 고뇌를 벗어나려면 소

유양식에서 존재양식으로 방향전환을 해야만 한다. '소유'는 '상실'을 그 본질로 지니고 있다. 오직 소유가 목적이며, 그것을 위한 생산 활동이 수단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의 삶은 비인간화로 치닫는 소유양식이 지배하며, 인간의 본래적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존재양식은 희석되고 밀리는 형국이다. 그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느낌마저 없지 않다.

2012년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을 따르는 평상심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았다. 그 평상심은 바로 하느님을 따르는 마음이며, 그 핵은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의 일치로 출발해 나와 남, 나와 하느님의 일치로 완성되는 삶을 역설하신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의 말씀 몇 구절을 다시 되새겨본다.

“사랑하라, 누구라도 좋다. 누구를 사랑해도 사랑하면, 바르게 사랑하면, 욕심을 없애고 이기적이지 않을 때 사랑은 늘 사람을 바르게 인도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솟는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저녁노을에 햇빛이』 뒤표지 글 일부) 이문희

## 금주의 성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4-1274년)

### 성 토마스 아퀴나스(토마스 데 아퀴노) 사제 학자 (1월28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천주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 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서양 문명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되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도미니코회의 수도자로서 많은 저술을 남기셨는데 그 중 <대이교도대전>과 <신학대전>이 특히 유명합니다. 성인께서는 뛰어난 지성과 학식을 지니셨지만 매우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으며, 열심한 기도와 수덕 생활로 환시, 탈혼과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천재적인 두뇌와 겸손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지식과 신앙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돕는다는 것을 보여 주신 분으로, 모든 대학교와 학교의 수호성인이십니다. 이문희

# 사람과 원죄

## 1. 사람

사람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과 육신이 합쳐 이루어진 생명체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어진 사람은 자기 본성이 세상 만물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초자연의 은총을 주시어 세상만물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사람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세상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시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이루도록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면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진리와 선을 추구하되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터득하고, 지성과 자유로 판단하고, 하느님이 심어주신 양심으로 선악을 가려내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함으로써 존엄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느님께서 계시는 줄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 2. 원죄

인류의 으뜸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류는 불행히도 초자연의 은총을 상실하고 죽음과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마음은 약해지고 지혜가 어두워져서 선악을 가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죄의 이 죄는 모든 자손들에게 대대로 미쳐 내려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잃어버린 초자연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창세 3,15),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원죄에 물든 사람은 누구나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죽음을 겪게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느님 앞에 나아가 사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의 결과 살아있을 때의 자기 행실대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세례성사를 받아 원죄를 용서받고 스스로 지은 죄도 고해성사로 용서받았지만 아직 죄의 보속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 정화된 다음에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종말 때에 살아있는 이와 죽은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 영혼과 육신이 결합하여 공심판을 받습니다. 개구주요

### 오늘의 미사 · 연중 제3주일

【입당성가】 19 주를 따르리  
 【제1독서】 요나 3,1-5.10  
 【화답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제2독서】 1코린 7,29-3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복음】 마르 1,14-20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 없으리라.  
 【성체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파견성가】 20 어두움을 밝히소서

## † 제1회 대구대교구 청년 윤일제



제1회 대구대교구 청년윤일제가 1월 13일(금)~15일(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에서 열렸다.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주최하고 사목국 청년담당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특강과 찬양, 축제미사, 모노 드라마, 윤일 합창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의 둘째 날인 친교의 날에는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축제미사가 봉헌되었다.



- ① 축제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와  
교구 사제단의 공동집전
- ② 축제의 밤, 난타 공연
- ③ 가수 김태원과 함께한 특강
- ④ 대회기간 동안 함께한  
열혈 청년 봉사자들
- ⑤ 축제의 밤  
그레고리안 성가 공연

## † 금주의 주요 교구일정

- ▶ 2012년 1월 26일(목) 14:00, 종교인평화회의 신년교례회 - 남산동 보현사
- ▶ 2012년 1월 28일(토) 14:00, 제17회 청소년을 위한 윤일 축제 -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 캠퍼스 중강당
- ▶ 2012년 1월 29일(일) 11:00, 이재명(바오로) 신부 퇴임미사 - 대곡성당

## 교회인도, 어렵지 않아요

박성규 엘리시오



## 성소 모임

### 가르멜 기도학교

기간: 1월~12월 (매월 마지막 주)  
1박 2일 피정식

장소: 마산 가르멜 피정의 집  
대상: 고등, 대학, 일반(선착순: 24명)  
문의: (010)9475-5254, 화: 4만5천원

###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28(토) 16:00~29(일) 14:00  
장소: 성주 가르멜수도원(경북 성주군)  
내용: 기도, 미사, 친교 등  
문의: (054)932-4640 / (010)3169-7416

## 피정 / 교육

### 성 필리보 생태마을 2012년 여름 환경피정

주제: 지구 온난화  
일정: 7.23(월)~8.26(일), 각 2박3일  
비용: 8만 원(6식)  
문의: (033)333-8066, ecocatholic.co.kr

###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구약반: 월 20:00, 화, 금 10:00  
신약반: 수 10:00, 목 20:00  
연구반: 월 10:00 (구·신약을 마친분)  
마감: 3.5(월), 선착순: 120명  
문의: 625-4627 / (010)6520-4627

### 젊은이 2박3일 성령 세미나

일시: 2.3(금) 11:00~5(일) 18: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피정의집)  
신청비: 7만 원  
문의 및 신청: (054)954-0951

### 제7기 세상속의 영성수련 교육

예수는 누구인가, 믿는다는 것, 기도란 무엇인가, 묵상과 관상, 원리와 기초, 성찰, 사별  
일시: 2.13~3.26(매주 월) 19:30~21:30  
장소: 월성성당(수강료: 6만 원)  
문의: 대구CLC, 793-3555

### 프란치스카눔 영어성경 학생 모집

첫모임: 1.28(토) 13:30  
대상: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문의: (070)4266-0045 / (010)5383-0650

### 대구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일시: 3.7(수)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내용: 성경, 전례, 역사, 문헌, 이론 속의 마리아  
접수: 255-4701 / (010)2635-0534

### 어버이성경학교 신입생 및 심화반 모집

신입생: 구약 2년, 신약 2년 총 4년 과정  
낮반-수요일, 밤반-목요일

심화반: 4년 수료자 위한 2년 과정(교훈서) 낮반, 밤반 - 월요일  
문의: 815-7888 / (010)2889-3114

###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1.11.7(월)~2012.2.10(금)  
대상: 세례 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내용: 신구약, 신학 일반(그리스도론 등)  
문의: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부, (02)745-8339(ci.catholic.ac.kr)

### 5차원 전면학습코칭 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2.3(금)~5(일), 창의력개발과인성교육특강  
2.24(금)~26(일), 5차원26기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054)436-0184  
주관: 유아청 청소년영성의 집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daum.cafe.유아청 참조)

## 안내

### 본도출판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대구매장

신앙서적, 미디어, 수도자 제작 성물, 유명 성 미술 작가 작품, 독일 성물  
위치: 대구 삼덕성당 내 (뒷쪽 길가)  
문의: 252-9889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ca.or.kr

## 미사안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월 26일 (목) 오전 11시	성모당
바노의성모님 기도회 및 미사	1월 26일 (목) 오후 2시	삼덕성당
공소후원회미사	1월 28일 (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 백내장수술  
의 학 박사 원장 박 중 원(소시모)  
현, 연세대의료교수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053)626-8881~5

신격증 대우이퍼트 앞 / 대형진용주차장 완비 / 여성진용병실  
**늘 시원한병원**  
의약비서 병원장 노성균(이우구스트노)  
☑ **체크하세요!**  
☑ 위내시경 ☑ 항문(치질)수술  
☑ 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www.hangmuns.com 959-7175  
위·대장·항문 클리닉·건강검진·내시경·암검진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믹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인공신장실**  
1호선 상인역 **수원내과**  
첨단혈액투석여과기 25대 / 야간투석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파라엘)  
☎ (053)642-7575

새하늘 새명을 여는  
신자가정을 위한 **중합 월간지**  
**빛**  
월간 '빛'은 다양한 모임과 선교에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문의 (053)252-5392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학박사/원장  
배연두(아오스당) 배삼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신장이세부전문/의학박사/원장  
배상영(마카엘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치안센터 건너편

도자기 찜질침대  
필터가 있는 도자기 정수기  
**청유당** 김한상(모이세)  
(〈특 제 품〉) 오정숙(헬레나)  
T.053-422-1588  
010-5033-3699

음주운전등- **최소**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전문**  
함동 감정, 행정 사무소  
대표 박수원(스테파노)  
M.B.C 네거리 문화웨딩 맞은편 3층  
753-4972 / 010-3651-4972

## 모임 / 행사

###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 기원 미사

일시: 1.31(화) 11:00, 계산성당  
주례: 조환길 태오 대주교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4~6

### 제17회 청소년을 위한 윤일 축제

일시: 1.28(토) 14: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  
주관: 중등교원사도직협의회  
문의: 660-5163

### 제5회 청소년 음악캠프

일시: 1차 2.11(토)~12(일)  
2차 2.18(토)~19(일)  
장소: 1차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2차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대상: 교구 내 본당 청소년밴드  
신청: 1차 1.29(일), 2차 2.5(일)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4

### 대구대교구 초등교원 신앙대회

일시: 1. 29(일) 10:00~17:00  
장소: 대구효성초등학교 대강당  
주제: 주님, 사랑과 평화의 학교,  
우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의: 교구 평협, 250-3057

## 교육

### 21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일시: 2.11(토) 15:00~21:00 매주 토(5주간)

장소: 월성성당 내 3대리구청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문의: 641-5678, 신청비: 15만 원

### 말씀 선포의 자신감을 갖기 위한 제3기 로고스스피치학교(6주 과정)

기간: 2.25~3.31(매주 토)  
13:30~17:00  
신청: <http://cafe.daum.net/biap>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

## 모집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급(국가자격증취득과정) 과정

접수기간: 2.1(수)~3.23(금)  
기간: 4.3(화)~6.29(금),  
주2회 3개월 과정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문의: 255-7222(교육비: 50만 원)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 1.23(월)~2.29(수)  
자격: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남·녀 만 60세 미만  
봉사부분: 안내봉사, 기도봉사, 세발봉사  
문의: 원목실 650-4442 / (010)6565-6672

### 수화교실 개강

기간: 2.26(일)~3개월, 계산성당  
매주 일요일 14:00~16:00  
수강료: 6만 원, 교재비 별도  
문의: 가톨릭농아선교회, 254~3423

### 푸른평화예술치료연구소 수강생 모집

동작 집단 치료(심신 치료)  
일시: 2.1(수) 10:30~12:30 (12회)  
표현예술치료과 꿈테라피  
일시: 매주 금요일 10:00~12:00  
문의: 794-6022 / (010)3513-2225

### 중국어 강의

일시: 매주 화, 목 11:00, 17:00  
개강: 2.14(화), 수강료: 3만 원  
강사: 왕문정 안드레아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문의: 781-6100

## 채용

### 상동성당 사무원 모집

제출서류: 자기소개서(자필),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교적사본  
서류마감: 1.29(일)까지  
문의: 상동성당 사무실, 764-0663

## 안내

###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상담실 이용

내용: 가정폭력,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이용방법: 내방, 전화, 사이버상담  
문의: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253-1401, 5  
홈페이지: [www.with1401.or.kr](http://www.with1401.or.kr)

군중후원회 1월 넷째 월요일 계산성당 미사가 설 명절 관계로 다섯째 월요일(1월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일따로식당**  
지하철 중앙로역 하나은행 뒤편  
김 영 일(라자로)  
유 옥 상(도미니카)  
☎(053)254-0028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주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대구 IC 정비공장 수입차전문  
판금/도장  
일반/보험/사고  
엔진/오일민선/하체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우님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상바로) 958-0009

**리노류마내과**  
LINO RHEUMATOLOGY CLINIC  
관절염 및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류마티스 내과  
원장 김성동(리노)  
[www.linoclinic.com](http://www.linoclinic.com) ☎248-6565  
범어네거리 범어롯데캐슬 상가 4층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삼조은병원**  
바쁜 직장인을 위한 야간정장진료 실시  
평일 09:00 ~ 20:00 / 토요일 09:00 ~ 17:00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053)630-8000 1호선 송현역 2번출구 앞

**新(신)대구정신과**  
원장·전문의 김 정 윤(라파엘)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서대구 미르치과**  
대표원장 박 상 준(안셀모)  
미국 Loma Linda 대학교  
치주과(잇몸치료/임플란트) 임상조교수 역임  
달서구 감삼동 61-5 (2호선 감삼역 1번출구)  
☎(053)628-1100

당신의 삶에 날개를 달어드립니다.  
**나래정형외과**  
발, 발목질환수술/골다공증/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원장 박 성 기(리노)  
TBC 방송국 옆 두산오거리방면  
☎(053)241-8275